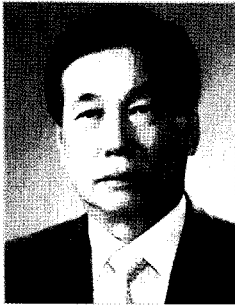


66회 식목행사에 참여하고!

이사 | 최남용



꽃샘추위가 아직 가시지 않고 우리 주위를 땀뚝고 간헐적으로 기습한파를 부르는 시기인 2011년 3월 19일 전라남도 제66회 식목행사를 하였다. 초청인원 200명과 초청인사로 산림경영인 임업후계자 그리고 지난날 도에서 산림직에 직간접으로 근무하였던 분으로 성대한 행사가 되었다. 그때 느낀 것은 우리 산림경영인은 나이도 들고 또 어느 특정한 복장도 없이 작업복 차림으로 가서 산림을 경영하신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임업후계자는 조끼에 임업후계자 표시를 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산림을 경영하실 분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지난날 산림을 경영하였던 1세대 산림경영인은 그 어느 누구도 산을 경영하시면서 고생하신분이 이곳에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은 없었다. 우리도 우리 홍보를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식목행사에는 박준영도지사님과 산림소득과 직원 등이 참석하여 나무를 성의껏 잘 심었다.

F-1 경기장의 특성을 살리어 청가시나무 6년생을 심었는데 지금은 작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울창한 사시사철 나무로 F-1경기장을 더욱 빛나게 할 수종이라고 생각하면 산림담당하신 분이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을 보고 박준영지사님께 수종 선택을 잘하시었다고 하였다. 박준영지사님께서 나무를 심으신다고 하여서 몇 그루 심으시고 사진이나 찍고 뉴스 꺼리나 제공하고 가실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종일관 너무나 나무를 열심히 심는 것을 보고 옆에서 감동을 받았다.

큰 그릇은 무엇이 달라도 다르고 그리고 진실한 면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식목 후 점심식사는 F-1경기장 메인 홀에서 영암에 유명한 불낙탕으로 맛이 그만이었고 또 거기 에다 막걸리 한잔은 오래 추억으로 간직하기에 충분한 것 같다.

식사 후 산림경영인 광주. 전남지회장 김형만, 장달식, 최남용, 양선모, 진재량씨 등 다수의 산림 경영인과 간담회를 가져 우리의 애로사항인 사무실 관계와 산을 숲 가꾸기나 수종갱신 작업에 산림

경영인의 참여 또는 경영인 산에 사업을 하여 주며 더욱 효율적으로 산림경영이 될 수 있다고 건의하였으며 일부 회원을 숲 가꾸기도 현 시점에서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지만 수종갱신에 더 많은 사업을 하여 좋은 나무가 자란 후에 숲 가꾸기를 하면 경제림이 생산되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재를 공급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수종갱신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2011년 전라남도 수종 갱신 예산으로 168억이 집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막상 산림을 경영하는 분은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내년부터는 산림 사업에 관하여 산림경영인의 작은 목소리를 참작하여 하였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으며 지사님이 구상한 산림경영은 장기수를 식재하면 자금이 회전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복합영농을 하여 당해 연도에 수입을 올려서 자금회전을 하는 등 산림경영하신 분이 자기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신 건에 대하여 참석자분 중 일부는 참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고 하였다.

산림경영인도 지난날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터득하여 산을 경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도시민이 휴일이면 산을 찾아와서 도시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자녀에게 영림법도 체험 할 수 있게 하고 온 식구가 산에서 하룻밤 지내므로 정도 더 두터워지고 갈 때는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여 일할 의욕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재밌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산에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산을 경영하는 분이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이제 좀 있으면 만물이 소생하고 녹음이 우거진 계절이 오겠지요. 그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네요.

건강을 생각해서 쉬엄쉬엄 일을 하시면 어떨까요?

2011년 4월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서리 443-7

최남용